

계양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우수기관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분야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복지 수준 향상과 복지행정 발전을 위해 지역복지사업(10개 분야)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종합 평가하고 있다.

계양구는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중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서비스 체계 구축 ▲읍면동 운영 ▲중앙기관 협력 ▲서비스 실적 ▲우수사례 등 총 13개 세부지표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유공 분야에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처리 실적 ▲지자체 자체 발굴 추진 ▲AI 초기상담 운영 ▲복지부 정책 협력 등이 반영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유공' 분야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됐다.

계양구는 지역 특성에 맞춘 복지사업 추진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해 신속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심하린 기자

강화군·강화경찰서, 대북전

단 살포 원천 차단 합동 점검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1일, 석모도 일대에서 강화경찰서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원천 차단 및 위험구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강화군 안전건설국장과 강화경찰서 경비안보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여했다.

해안선을 따라 밀물 때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내 위험구역의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확인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우려 지역 순찰 강화 ▲현장 접근 통제 및 안전조치 점검 ▲유관기관 간 대응 체계 확인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방안 논의 등을 중심으로 현장을 살피며 대응 계획을 공유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합동 점검과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내 안보 위험요인 제거와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군·경의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준비나 의심되는 행동을 목격한 주민께서는 즉시 군청 또는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며 "신속한 신고가 지역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심하린 기자

인천시, 식생활 취약계층에 먹거리 기본보장 시범 운영

먹거리·생필품 지원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보호

내년 4월까지 매주 (수) 시범 운영 후 기초푸드마켓 7곳에서 본사업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부터 식생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복지제도 사각지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까지 시범 운영 후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기부식품지원센터(광역시푸드뱅크)가 참여해 매주 수요일 오전 10~12시 인천사회복지회관(남동구 간석동 소재) 1층에서 시범 운영한다. 생계가 어려운 시민 누구나 방문하면 매주 50명 범위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라면,

즉석밥, 조미김 등 1인당 3~5개 품목(2만 원 상당)의 먹거리·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1인이 최대 2회(월 1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 재방문 시에는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1회 방문자도 본인이 동의하면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다.

내년 5월부터 시작하는 본사업에는 5개 군·구, 7개 기초푸드마켓이 참여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며, 시범 사업 이용자의 거주지 분포와 이용 시간대 등을 분석해 운영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기부식품지원센터(☎032-891-1377)로 문의하면 된다.

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실로 찾아가는 초등 진로체험 프로그램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학기말 교육활동 내실화를 위해 갈산초등학교 4~6학년

을 대상으로 '교실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업인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이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활용한 VR·AR 체험 △게임 개발자 직업 탐색 △AI 튜닝 기반 진로 이미지 제작 △웹툰 제작 등으로 구성했다.

한 학생은 "인공지능으로 미래 직업 모습을 이미지로 만들고 웹툰까지 완성하니 진로가 더 구체적으로 느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기말 진로체험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를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춘 맞춤형 진로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2026~2030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남동구는 구청에서 2025년 제2차 남동구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2026~2030년 5개년 청년정책의 방향을 담은 남동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남동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남동구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적 정책 계획이다.

구는 "청년이 도약하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남동구"라는 비전 아래 ▲청년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도시, ▲일자리가 있어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 ▲주거·복지·문화가 보장되는 살고 싶은 도시를 목표로 마련된 중장

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청년 친화형 일자리 환경 조성, 안정된 청년의 삶의 질 향상, 청년 중심의 문화 활성화, 청년 참여·소통 확대 및 권리보호의 4대 분야 40개 사업이며,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삼아 청년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이번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남동구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지역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청년정책의 청사진"이라며 "청년이 남동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동구,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오는 18일~24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를 위한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수거보상제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해오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 일자리 제공 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

참여 대상은 동구 거주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주민으로 한정되며, 신청접수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8~24일까지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

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작업 방법과 정비 대상 범위 및 보상금 지급조건, 안전수칙 등에 대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속원증을 제공받는다. 구는 수거 실적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까지 광고물 지급단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주민수거보상제 추진으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의 밤

백령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명자)은 지난 9일, 복지관 3층 강당에서 '2025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의 밤'을 개최하면서 한 해 동안 복지관을 통해 지역 사회 돕기에 힘쓴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60여 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도 사업보고 ▲감사패 전달 ▲직원 축하공연 ▲감사 만찬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과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

백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196명이 1,405시간의 봉사활동(연인원 436명)에 참여하였고, 126명 이상의 후원자들이 다양한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해 후원에 동참하였다

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지역사회 돌봄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복지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었다.

장명자 관장은 "올 한 해 복지관의 다양한 사업이 의미 있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힘을 보태 주신 많은 분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복지관, 필요한 곳에 먼저 다가가는 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령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과 나눔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후원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심하린 기자

